

카프 전후 소설의 어휘 사용 양상

- 계량적 방법을 중심으로 -

문한별(고려대) · 김일환(고려대)

< 목 차 >

- | | |
|---------|-----------------|
| 1. 문제제기 | 3. 시기별 어휘 변모 양상 |
| 2. 방법론 | 4. 결론 |

1. 문제제기

문학은 언어로 구현된 텍스트를 창조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데 비해 어학은 언어 자체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문학과 어학은 그 학문적 성격에 있어 ‘언어’를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목표에 있어서는 뚜렷이 구분된다. 문학 연구에서는 이 같은 속성 때문에 텍스트에 구현된 어휘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개별 작가들의 어휘 조직 양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과 어학이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별 작가들의 작품에 구현되는 ‘언어’는 궁극적으로 작가가 텍스트를 창조하기 위해 사유하고 고민하는 자국어의 토대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소통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문자’의 기반 위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문학 연구의 방법에서 언어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의 분석, 비평 등에 의미 있는 방법론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문학 텍스트의 분석과

비평이 주로 연구자의 직관과 내성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사용 양상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30년대 카프 해체 이후 소설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계량적 방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문학 연구에 있어서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의 도입의 의의를 구명해 보려 한다. 특히 카프 이후 소설들이 보이는 언어 사용 양상은 대개 개념적, 직관적으로 그 사용 양상을 대체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실제 텍스트에서 어떠한 어휘가 어떠한 빈도로 얼마나 폭넓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텍스트의 언어 사용 양상을 밝히기 위한 방법론이 문학에서는 마련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문학 텍스트 분석에서 계량적 방법의 의의가 밝혀질 수 있다면 앞으로 유사한 주제의 연구들을 기획하는 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근대소설사에 있어서 1920년대부터 해방 전까지의 시기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설명되기 어렵다. 초기 계몽 문학의 시기였던 1910년대를 지나 본격적인 근대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20년대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후 문화정치의 영향 아래에서 전개되었고, 1925년 카프의 결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카프의 등장은 계몽주의나 자연주의에 몰두하고 있었던 소설 창작의 흐름을 리얼리즘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재편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 시기 이후의 소설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뉘어져 전개되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이며, 다른 하나는 여기에 일정한 거리를 둔 다양한 흐름의 총 합에 해당하는 소설들이다.

카프 소속 작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은 동반자 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비판적 사실주의의 흐름을 이끌어나가다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화의 시기를 거친다. 그것은 1931년 제 1차 검거 사건과 1934년 2차 검거 사건을 통한 카프의 해체이다. 카프 및 동반자 작가 계열에 속하던 작가들은 이 두 번의 사건을 겪으며, 체제에 순응하는 ‘전향’의 길을 요구받았으며, 이 같은 흐름은 그들의 문학 세계 전반과 작품 전체의 방향성을 수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카프의 등장 이후 비판적 사실주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작가들 역시 193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새로운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의 본격적인 근대화라 부를 수 있는 이 흐름은, 근대라는 문명과 사회의 울타리 내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의 영역 속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식민지 문학 공간의 동일한 자장 안에서 두 부류의 작가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카프 작가들이 해체라는 아픔을 겪으며 그들의 방향성을 ‘전향’하게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흐름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작가들 역시 그 변화의 ‘영향’ 속에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징적인 사건들을 기준으로 1925년부터 1934년 카프 해체기까지의 작품들과 1935년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은 문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개별 작가의 변모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문학사의 특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개별 작가의 작품들을 사적 흐름 속에서 해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²⁾.

그러나 이 모든 전제 조건들은 명확한 사실 명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도 분명한 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소설이 완결된 한 작품을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아우른 내용이나 주제의식만을 가지고, ‘전환’이나 ‘전향’ 혹은 ‘영향’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같은 전환과 변화의 흐름은 매우 실증적이며 구체적인 부분의 총체적 합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씨줄과 날줄이 일치하였을 때 우리는 이 작품들이 속해 있는 문학사의 실제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휘를 통한 계량적 비교 연구는 이 같은 문학사의

- 1) 김인옥, 「1930년대 후기 한국 전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7.
김재용, 「전향과 변절의 역사 환상에서 환멸로」, 《역사비평》 가을호, 1993.
이기인, 「카프방향전환론의재검토」,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06.
- 2) 유문선, 「동반자 작가 전향에 관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1983.
정희모, 「1930년대 창작방법 논쟁과 카프 문학의 미학」, 《한국비평문학》 13, 1999.07.
진영복, 「1930년대 한국 근대소설의 사적 성격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적 변화가 실제로 작품 내에서 구현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일한 시기의 작품들이 동일한 문학적 자장 안에서 함께 추동하고 있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변화의 시기를 관통하여 작품을 창작한 개별 작가들의 작품들이 보이는 구체적 변모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론

2.1. 대상 작품

1934년 카프의 해체를 전후로 한 소설들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휘 추출과 비교 충분히 하기 위한 작품 텍스트의 선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1925년부터 1944년까지 20년에 걸쳐 작품을 발표한 22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³⁾. 이들 작가들의 작품 발표 현황과 대상 작품의 전체 수량은 아래와 같다⁴⁾.

3) 작가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가 주된 작품 발표 시기인 작가, 둘째, 1934년 카프 해체를 전후로 등장한 작가, 셋째, 1925~1934년 · 1934~1944년 사이에 등장하여 각 시기에 중점적으로 작품 활동을 진행한 작가이다. 세부 작품 목록은 부록을 참조.

4) 분석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문학사적 시각을 통한 일정한 기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분석 대상 작품 선정의 임의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근현대소설 가운데 20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발표된 작품들을 모두 섭렵하고, 이를 전자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전자화되지 않은 소설의 작품 수가 전자화된 작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상태이고, 이를 전자 텍스트로 문서화하는 것은 입력 작업 자체가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선본으로 선정된 작품집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친 선본의 경우 편집과 선정 과정에서 일정한 문학사적 평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

- ▶ 1934년 이전: 70편, 265,006 어절, 작가 수 19인
- ▶ 1934년 이후: 67편, 283,555 어절, 작가 수 14인

이와 같이 선정된 22명(중복 제외)의 작가 137편의 작품은 1925년부터 1944년까지 대상 선본에 수록된 단편소설들이다. 본 연구에서 단편소설만을 대상 작품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양식적으로 구분되는 장편과 단편의 분량 차이가 어휘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분석 후의 데이터 산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34년을 전후로 한 작품 가운데에는 동일한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두 시대의 소설 텍스트가 보이는 어휘 사용 양상의 차이가 단순히 작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오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2.2. 처리 방법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소설 작품 137편을 전산 입력하여 소설 원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본격적인 말뭉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헤더(header)와 마크업(markup)이 필수적이지만 본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매우 간략화해서 처리하였다.

전산 입력된 소설 원시 말뭉치에서 단어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형태소 분석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체 어절이 50만을 넘는 규모의 말뭉치이므로 이를 일일이 사람이 형태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 본고에서 형태소 분석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도길(『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품사 부착을 위한 확률 모형』,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5)의 KOMA 태거(tagger)로, 이 태거의⁵⁾ 전반적인 분석 성공률은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입력 대상 선본으로는 한국 근현대소설 작품을 망라하고 있는 동아출판사 판 『한국소설 문학대계』를 선정하였고, 작품은 직접 입력을 통하여 출판본과 동일한 표기 및 교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5) 태거(tagger)는 대상 어절의 형태소를 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고 그 결과를 원어절에 부착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 칼럼은 해당 텍스트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위 텍스트는 원전이 계용목의 ‘백치 아다다’임을 나타내 주고 있어 해당 단어의 출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위의 분석 결과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단어인 일반명사는 NNG로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분석 오류를 수정하고⁶⁾ 최종적인 소설 말뭉치가 완성된 후 본고에서 주로 다룰 어휘인 명사의 통계 정보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편 도출된 통계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한 어휘의 빈도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엄밀성을 결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시대에서 쓰인 명사 가운데 사용 빈도의 차이가 10 이상인 명사들을 우선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들은 비록 빈도에서 10회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빈도상의 차이가 모두 의미 있는 것인지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특정한 어휘의 사용 빈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단순히 카프의 해체 여부와 관련지어 해석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어휘의 변화는 문법 요소의 변화보다 시대에 따른 변화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두 어휘의 단순한 빈도 차이뿐 아니라 텍스트 전체에서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평균적인 사용 양상과 그 편차는 어떠한지의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 이들은 해당 어휘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이 값을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6) 특히 일반명사의 분석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 오류에는 주로 고유명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대의 소설에 등장하는 ‘건성이, 음전이’ 등의 인명은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명사로도 분석이 가능한 중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동 분석에서 오류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사용 빈도의 차이, 분산 그리고 표준편차 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카프 해체를 전후로 한 소설 작품에서 나타나는 어휘 사용 양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구명할 수 있는 것이다.

2.3. 주요 어휘의 사용 양상

이 연구에서는 카프 해체 전후의 소설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일반명사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소설 텍스트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사, 형용사, 관형사, 그리고 부사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어휘가 차지하는 전반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일반명사를 우선적인 관심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반명사가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은 다음의 표에서 보이듯이 동사, 형용사와 비교해 볼 때에도 크게 유형과 빈도에서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1934년 이전			1934년 이후		
	유형	빈도	사용 비율	유형	빈도	사용 비율
일반명사	12,058	99,221	37.441	12,779	103,069	35.872
동사	2,578	72,336	27.296	2,858	77,681	27.037
형용사	1,353	16,326	6.160	1,594	18,172	6.325

[표 1] 주요 어휘의 어휘 사용 양상 비교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명사는 동사, 형용사와 비교할 때 빈도뿐 아니라 유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사용된다. 이는 다른 품사 범주와는 구별되는 일반명사가 가지는 높은 어휘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비교에 있어서 일반명사는 우선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3. 시기별 어휘 변모 양상

3.1. 어휘 사용 양상과 관련한 가설

카프의 등장을 전후로 하여 한국 현대소설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의 등장과 이에 대별되는 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의 존재이다. 먼저 1925년부터 1934년까지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에 속하는 작가들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작가 19명 가운데 11명이며, 김기진, 김남천, 박영희, 박태원, 이기영, 조명희, 박화성, 최서해, 이효석, 유진오, 엄홍섭, 주요섭 등이며, 동일한 시기 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에 해당하는 작가들은 계몽묵, 김동인, 나도향, 박태원, 신채호, 전영택, 이태준, 현진건 등 8인이다.

이들 작가들의 작품 70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우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작가들을 카프 소속을 중심으로 이분화 하였을 때, 두 대상 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드러내는 어휘의 사용 양상은 차이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한국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는 카프 문학이 지닌 계급성이 실제 작품에 단어로서 투영되고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만일 계급성을 드러내는 단어들인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들 작품에서만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두고 적게 사용되었다면 기존의 문학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제는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총체적으로만 언급되었던 작품 성향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특정한 어휘가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성향을 좌우하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만일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과 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어휘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카프라는 단체의 소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당대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특정한 어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35년 이후의 분석 대상 작품은 작가 14명에 전체 작품 67편이다. 1934년

카프 해체 이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군에 속하는 작가 8명⁷⁾, 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 6명⁸⁾이 분석 대상 작품의 작가이며, 이들의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전제할 수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만일 이들 작가들 가운데 1934년 이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계급성을 드러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작품 성향은 카프 해체 이후 분명하게 변화⁹⁾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카프의 해체와는 무관하다는 점. 둘째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에 속했던 작가나 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 사용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카프 해체가 문학사의 흐름에 있어서 사회적·역사적 흐름이 작품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 속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사들을 분류·비교 하였다. 먼저 위에 전제한 가설과 명사의 사용 양상이 실제로 일치하는가의 여부, 둘째로 시기별 조건별로 명사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가의 여부에 주목하였다.

3.2. 명사의 사용 양상

작품 속에 활용된 어휘는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사용 문맥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거나 한정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빈출 정도에 먼저 주목하기로 하였으며, 사용 어휘의 문맥적 의미는 특징적인 경우에만 비교하도록 한다¹⁰⁾. 우선 빈출 명사 가운데

7) 김남천, 이효석, 유진오, 박화성, 엄홍섭, 주요섭, (이근영, 강경애) 등 8명. 이 가운데 괄호 내의 작가들은 1930년대 이후 등장한 비판적 사실주의 성향의 작가들이다.

8) 계용목, 김동인, 박태원, 이광수, 이태준, (지하련) 등 6명. 이 가운데 괄호 내의 작가는 1930년대 이후 등장한 비 비판적 사실주의 성향의 작가이다.

9) 1931년과 1934년에 걸친 카프의 1, 2차 해체 이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전향'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작품의 성향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

10) 어떠한 어휘가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첫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특수성과 둘째, 어휘의 활용 조건 즉 문맥에 따라 기존의 의미를 넘어서서

1935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격한 출현 빈도차를 보이는 상위 30개 어휘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빈도차 순위	일반 명사	1934년 이전	1935년 이후	빈도차	1934년 이전 평균 빈도	1935년 이후 평균 빈도	1934년 이전 표준 편차	1935년 이후 표준 편차
1	사람	2,162	1,714	448	31.42	25.97	27.04	18.45
2	일	1,107	974	133	15.81	14.54	14.17	14.20
3	소리	1,026	863	163	14.66	12.88	11.23	9.36
4	마음	491	825	-334	7.01	12.31	8.55	13.13
5	어머니	450	686	-236	6.43	10.24	10.82	26.41
6	아내	368	565	-197	5.26	8.43	9.66	18.03
7	몸	338	475	-137	4.83	7.09	4.62	9.07
8	방	335	505	-170	4.76	7.54	5.54	11.05
9	서방	334	153	181	4.77	2.28	15.71	10.33
10	주사	295	57	238	4.21	0.85	21.70	3.90
11	까닭	286	182	104	4.09	2.72	7.07	4.58
12	계집	285	121	164	4.07	1.81	11.60	3.49
13	밥	228	104	124	3.26	1.55	4.60	2.18
14	노인	167	56	111	2.39	0.84	14.34	3.72
15	생활	153	207	-54	2.19	3.09	3.35	6.34
16	공장	145	25	120	2.07	0.37	8.48	1.06
17	상제	122	3	119	1.74	0.04	14.16	0.21
18	감독	117	9	108	1.67	0.13	11.13	0.49
19	가난	117	46	71	1.67	0.69	3.57	1.21
20	남편	108	212	-104	1.54	3.16	2.54	7.03
21	노동자	101	3	98	1.44	0.04	4.59	0.21
22	꿈	99	140	-41	1.41	2.09	2.32	3.27
23	영감	95	287	-192	1.36	4.28	3.04	14.30
24	양반	81	24	57	1.16	0.39	4.95	1.07
25	민중	70	3	67	1.00	0.04	8.01	0.21
26	책	61	168	-107	0.87	2.51	2.45	5.21
27	고향	57	122	-65	0.81	1.82	1.81	6.64
28	파업	49	3	46	0.70	0.04	3.54	0.37
29	지주	48	11	37	0.69	0.16	2.83	0.93
30	연애	40	114	-74	0.57	1.70	1.57	8.65

[표 2] 높은 빈도차를 보이는 상위 30개 일반명사 목록

특수화되는 경우로 구분지어 생각할 수 있다. 작품 속에 사용된 어휘의 분명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어휘의 '언어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여야 하지만, 본고의 경우 방법론적 시론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기로 하였다.

위의 표는 1934년 카프 해체기를 기점으로 하여 출현 빈도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명사들의 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대상 텍스트 어휘의 전체 수량을 일정 비율로 맞추으로써 비교 대상 사이의 격차에 따른 어휘의 증감을 최소화하려 하였음을 전제한 바 있다. 비슷한 작품 수와 어휘 수를 비교하였을 때만이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선 빈도 차이를 보이는 상위 빈출 어휘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는 양상의 차이이다. 먼저 대부분의 작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 예를 들어 ‘사람’, ‘일’, ‘소리’, ‘마음’과 같은 어휘의 경우는 그 의미의 일반성이 당대적 시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특수성과 문학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를 추출할 수 있다.

우선 그 기본 의미에 있어서 계급성과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는 명사들에는 ‘노동자’, ‘양반’, ‘민중’, ‘과업’, ‘지주’ 등이 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하여 이 명사들의 수치적 특징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경우 1934년 이전 작품에는 101회나 등장하였으나 1935년 이후에는 불과 3회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어가 전체 137 작품에서 만일 골고루 분포되어 출현한다면 평균 빈도는 1934년 이전에는 1.44회, 1935년 이후에는 0.04회가 확인될 것이다. 또한 표준편차와 분산을 통하여 확인할 경우 이 명사는 1934년 이전에는 분산 값 21.06을, 1935년 이후에는 분산 값 0.04를 지닌다. 분산 값은 평균값과의 분포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 명사가 1934년 이전이 1935년 이후보다 분산 값이 크기 때문에 표준 빈도 값에서 골고루 퍼져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분산 값이 크게 나타나는 어휘의 경우 1935년에 비하여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¹¹⁾.

그렇다면 이 같은 판단이 실제 작품과 작가별로 일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11) 분산 값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텍스트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평균과 큰 수치 차이를 보이는 하나의 텍스트가 평균값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34년 이전 출현 작품 수	1935년 이후 출현 작품 수	1934년 이전 활용 작가 수	1935년 이전 활용 작가 수
32/137	3/137	12/22	3/22
23.36%	2.19%	54.55%	13.63%

[표 3] 명사 ‘노동자’의 전체 대상 작품 내 출현 양상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 ‘노동자’라는 명사는 분산 값을 통하여 유추한 바와 동일하게 1934년 이전에는 1935년 이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작가의 다양한 작품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카프 해체 이전의 작품에서 이 명사는 그 이후보다 분명한 시대성을 반영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양반’이라는 명사를 확인할 경우, 1934년 이전에는 11작가(50%), 17작품(12.41%)에서 출현하며, 1935년 이후에는 6작가(27.27%), 11작품(8.03%)에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파업’의 경우, 1934년 이전에는 3작가(13.64%), 5작품(3.65%)에서, 1935년 이후에는 1작가(4.55%), 1작품(0.73%)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 가운데, ‘노동자’라는 명사를 활용하고 있는 작가들 12명에는 9명이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에 속해 있다. 즉 나도향과 이태준, 박태원을 제외한 나머지 작가들은 카프에 가담한 작가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작품 가운데 ‘노동자’라는 명사를 사용한 횟수는 전체 76회에 달한다. 이에 비하여 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 3인이 동일한 명사를 사용한 경우는 25회이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계열의 작가들 작품 속에 출현하는 ‘노동자’라는 명사는 어떠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추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작품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계열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비교를 위하여 작품 속에서 ‘노동자’라는 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한 3명의 작품을 계열 대비하여 제시한다.

- ㉠ 그것은 철원에 수리조합이 생기며 그 개간공사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까닭도 있지만 금강산(金剛山) 전기철도가 놓이며 철원은 무서운 속력으로 발전을 하는데 따라서 다소간의 금융이 유력하여지며 멀리서 듣는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충동하여 ‘나도 철원, 나도 평강(平康)’ 하고 덤비게 된 것이다.

노동자가 모이여 주막이 늘고 창기가 늘었다.

자본 있는 자들은 노동자가 많이 모여들수록 임금을 낮춰서 얼마든지 그들의 기름을 짜내었다. 그러나 그렇게 기름을 짜낸 돈은 또 주막과 창기가 짜내었다. 남은 것은 언제든지 빈주막이었다. (나도향, 「지형근」, 『한국소설문학대계』22, 동아출판사, 1995, p.201.)

㉠ 그러나 그들은 효자효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노동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전의 효자는 지금의 노동자다! 효자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듯이 노동자도 가난한 집에서만 나온다!

건성이라도 훌륭한 노동자가 되어 나왔다.

그는 칠 년 동안의 노동생활을 회상해 보았다. 처음에 방적공장에 들어갔을 때 감독의 학대와 공장주의 무리한 xx로 설새없이 노동하는 수천 명 직공의 참담한 생활을! 기숙사에서 마치 xx와 같이 갇혀서 햇빛을 못 보는 여직공들의 얼굴! 폐병 들린 그들의 기침과 각혈! 그런데 음침한 공장 속에서는 악마 같은 기계가 설새없이 돌아갔다. 그러는 대로 그들은 산 기계와 같이 수족을 놀린다. 그러다가 까딱하면 금시에 멀쩡하던 사람이 송장으로 떼매어 나오지 않는가? (이기영, 「홍수」, 『한국소설문학대계』10, 동아출판사, 1995, p.501.)

㉡ 삼백 명의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이처럼 격분하여 경찰서에 쇠도하게 까지 된 하수도 공사의 내막은 이리하였다.

실업(失業) 노동자들을 구제하기로 목적인 하수도 공사가 근년에 유행과 같이 각처에서 일어났다.

목포부에서도 실업 구제의 하수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중정이라는 자와 칠만 팔천 원의 경비로 육 개월 안으로 공사를 준공시키기로 청부계약이 성립되었다. (박화성, 「하수도 공사」, 『한국소설문학대계』21, 동아출판사, 1995, p.338. 이상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까지의 세 편의 인용문은 ‘노동자’라는 명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위 3편의 작품들이다. 이 가운데 ㉠에 해당하는 작품은 문학사에서 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나도향의 1926년 작 「지형근」이며, 이 작품에 ‘노동자’라는 어휘는 16회 출현한다. ㉡은 대표적인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기영의 1930년 작 「홍수」이며, 여기에는 ‘노동자’라는 명사가 15회 사용되었다. ㉠은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 성향의 작가인 박화성의 1932년 작 「하수도 공사」의 일부이

며, 이 작품에는 32회의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먼저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가라 할 수 있는 이기영의 작품 속에서 ‘노동자’라는 명사는 “효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듯이 노동자도 가난한 집에서만 나온”다며 ‘노동자’의 계급적 출신을 언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후의 문장에서 “감독의 학대”, “공장주의 무리한~직공의 참담한 생활” 등의 서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사는 철저하게 ‘노동자’라는 단어의 ‘계급’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화성의 작품 인용문 ㉔역시 동일하다. “삼백 명의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파업과 투쟁’이라는 계급 갈등을 전제로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로 알려진 ㉕의 나도향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노동자’라는 명사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자본 있는 자들은 노동자가 많이 모여들수록 임금을 낮춰서 얼마든지 그들의 기름을 짜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자본가의 착취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사람들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유카타 바람으로 이곳을 찾아올 게다. 입에들 담배를 물고…… 진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 잠자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자기의 초라한 행색을 보일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진수는 기운 없는 뱃속에다 줄 힘도 없이, 허청허청한 다리를 이끌고 공원을 나왔다. 어디로 가나. 물론 주인집으로밖에 갈 곳을 그는 갖지 못한다. 혹 누가 그 동안에 찾아오지나 않았을까. (박태원, 『딱한 사람들』, 『한국소설문학대계』19, 1995, p.225.)

나도향이 보인 이 같은 비판적 사실주의 성향의 명사 사용은 또 다른 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인 박태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차이가 분명해 진다¹²⁾. 위의 인용문은 1934년 박태원 작 『딱한 사람들』의 일부인데, 이 작품에서 ‘노동자’라는 명사는 “초라한 행색”이 유사한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급성은 반영되어

12) 이는 나도향이라는 작가가 초기 낭만주의적 성향의 작품을 발표하다가 빈부와 계급과 관련한 사회 구조에 관심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1935년 이후에 더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명사들은 계급적 관계나 속성을 드러내는 어휘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 ‘아내’, ‘뭍’, ‘방’, ‘생활’, ‘남편’, ‘꿈’, ‘영감’, ‘책’, ‘고향’, ‘연애’ 등이 그것들이다. 1934년 이전에 자주 출현하였던 어휘들의 특수한 의미성에 비하여 이들 명사들은 일반적이며 시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어머니’, ‘아내’, ‘영감’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의 소설 작품 속에는 주로 가족이나 호칭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단어 사용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인 ‘어머니’와 ‘아내’, ‘남편’ 같은 단어들이 현격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든지, ‘영감’, ‘아저씨’ 등과 같이 호칭과 인간관계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와 같은 판단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이 명사들 가운데 가족 관계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아내’라는 어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1934년 이전 출현 작품 수	1935년 이후 출현 작품 수	1934년 이전 활용 작가 수	1935년 이전 활용 작가 수
30/70	39/67	15/22	14/14
42.86%	57.21%	68.18%	100%

[표 4] 명사 ‘아내’의 비교군 내 출현 양상

[표 4]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35년 이후의 작품들에서 ‘아내’라는 명사가 그 이전에 비하여 비교적 폭넓게 분산되어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1934년 이전에 이 명사를 활용한 작가가 68.18%인 15명에 불과한 것에 비하여 1935년 이후에는 14명 전원(100%)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카프 존치기의 작가들이 해체 이후에는 기존의 관심사를 보다 확장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학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카프 해체 이후에 등장한 작품들이 개인의 심경이나 삶, 가족과 일상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은 이로서 타당성이 충분해진다. 또한 상위 10개 이외에도 1935년 이후의 작품에서 최소 10개 이상 차이가 나며 많이 사용된 ‘가족’ 관련 어휘에는 ‘아버지’, ‘엄마’, ‘결혼’, ‘오라비’, ‘가정’, ‘할머니’, ‘어미’, ‘부인’, ‘할멈’, ‘형’, ‘외삼촌’, ‘신랑’ 등이 있으며, 개인의 ‘심리’와 ‘심경’을 의미하는 명사로 ‘정신’, ‘눈치’, ‘근심’, ‘감동’, ‘고독’, ‘불만’, ‘미안’, ‘심경’, ‘감각’, ‘기분’, ‘우울’, ‘냉정’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 같은 설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어휘 가운데 ‘심경’을 드러내는 명사인 ‘마음’이 사용된 용례를 1934년 이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의 예와 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남수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아내의 괴로움이 남수 자신의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아내가 불쌍해졌다.

뭘. 자기는 그만 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만한 포용성과 관대한 마음은 가지고 있건만——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아내의 등을 두덕두덕 두드려 주며 그를 위로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김남천, 「처를 때리고」, 『한국소설문학대계』13, 동아출판사, 1995, p.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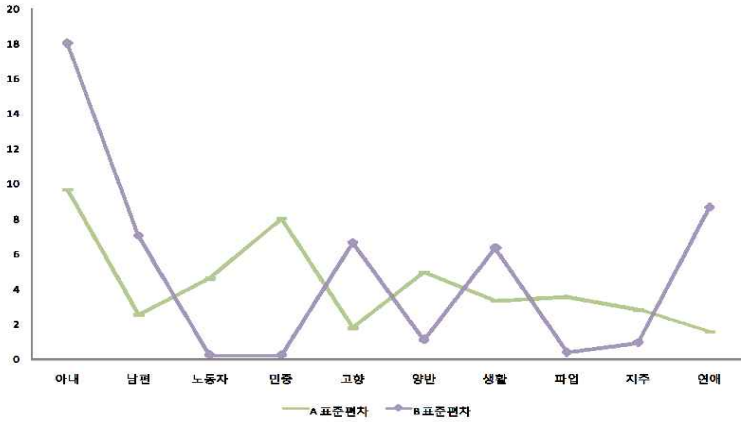
㉡ 현의 아내는 이날도 보송보송해 잠들지 못하는 납편더러 집을 팔고 시골로 가자 하였다. 시골 중에도 관청에서 동 뜯 두메로 들어가 자농(自農)이라도 하면서 하루라도 마을 편하고 배불리 살다 죽자 하였다. 그런 생각은 아내가 꼬드기기 전에 현도 미리부터 궁리하던 것이나, 지금 외국으로는 나갈 수 없고 어디고 일본 하늘 밑인 바에야 그야말로 민불견리(民不見吏), 야불구괘(夜不狗吠)의 요순(堯舜) 때 농촌이 어느 구석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이태준, 「돌다리」, 『한국소설문학대계』12, 동아출판사, p.268.)

카프 해체 이전 대표적인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인 김남천의 작품인 1937년 작 「처를 때리고」을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개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명사는 ‘아내’라는 가족관계를 드러내는 명사와 함께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비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인 이태준 역시 그의 작품 「돌다리」(1943)에서 ‘마음’이라는 명사를 ‘아내’, ‘납편’ 등의 가족 관계를 드러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수많은 사용 예시에서 이 같은 비슷한 용례에서만 이 명사들이 사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빈출 어휘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개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명사와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가 동일한 비중으로 이전보다 자주 등장하고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사실은, 이 두 성향의 단어들 이 비슷한 조건 속에서 조우하고 조합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1935년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작가의 성향이 1934년 이전 비판적 사실주의 계열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생활’과 관련한 어휘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빈도 차이가 두드러지는 명사들 가운데 ‘은행’, ‘삶’, ‘사무’, ‘소학교’, ‘양장’, ‘하숙’, ‘호텔’, ‘의사’, ‘산보’, ‘직업’, ‘찾집’, ‘식당’, ‘빨래’, ‘양복’ 등,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한 단어들 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는 작가의 성향과 무관하게 1935년 이후의 작품이 개인의 삶과 일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최초 가설로 제시하였던 것 가운데, 1934년 카프 해체기를 전후로 하여 한국 현대소설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 성향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 그 변모의 양상은 1934년 이전의 작품들은 작가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계급성을 드러내는 명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1935년 이후의 작품들은 작가의 기존 성향과는 무관하게 ‘개인’과 ‘생활’의 문제에 침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림 2] 카프 해체 전후 비교군의 빈출 어휘 표준편차 양상

위의 그래프는 카프 해체를 전후로 한 빈출 어휘 가운데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한 명사들의 표준편차 양상이다. 'A표준편차'와 'B표준편차'의 차이는 특정한 명사가 1934년 카프 해체를 전후로 하여 얼마나 빈출하고 분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프의 첫 번째 항목인 '아내'의 경우 1934년 이전 현황인 'A표준편차'가 'B표준편차'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934년보다 그 이후에 자주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며, 이에 비하여 '노동자', '민중', '양반', '파업', '지주' 등은 'A표준편차'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카프 존치기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결론

문학 연구에 있어서 작품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문학사적 위치에서 재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연구가 지닌 일정한 한계는 분석 대상을 미시적으로 좁히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비록 문학 작품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견지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문학 텍스트 역시 단위 어휘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가 착안한 방법은 텍스트를 전자화하고 이를 대상으로 어휘를 분할한 후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어학적 방법론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직관적으로 판단되어온 연구 결과들을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통하여 논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대체적 방법론으로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1925년부터 1944년까지 2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소설의 대표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어휘를 계량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의미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단순히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문학사적 이슈로 판단되던 카프 전후의 변화 양상이 어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25년부터 1934년 카프 해체 이전까지의 작품에서는 계급성을 드러내는 명사들이 그 이후에 비하여 자주 출현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카프에 속한 작가들만의 특성은 아니라는 점이였다. 이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모든 품사들을 분석 대상으로 확장하였을 때 보다 그 의미가 분명해지겠지만, 카프 중심의 비판적 사실주의는 당시의 시대상 속에서 주도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카프 해체 이후 전향을 통하여 비판적 사실주의 작가들이 방향성을 전환하고, 비 비판적 작가들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관계와 개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명사들이 카프 해체 이전 시기에 비하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단이 가능하였다.

추후 본 연구는 이 같은 어학과 문학의 연구 방법론의 교류를 통하여 문학사적 흐름에 대한 실증, 개별 작가의 문체 변모 양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순히 특정한 어휘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의미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어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어휘 사용의 맥락까지도 파악하는 데에 이 방법론이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 코퍼스, 카프, 계량적 접근, 사회 계급, 표준 편차, 문학사

<참고 문헌>

- 강범모·김홍규, 『한국어 사용빈도』, 한국문화사, 2009.
- 김인옥, 「1930년대 후기 한국 전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7.
- 김일환, 「말뭉치 규모와 텍스트 유형에 따른 명사류의 사용 양상」, 《동양학》 43, 2008.02.
- 김재용, 「전향과 변절의 역사 환상에서 환멸로」, 《역사비평》 가을호, 1993.
- 김태엽, 「현진건 소설의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2006.05.
- 문한별, 「이광수 초기 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03.
- 유문선, 「동반자 작가 전향에 관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1983.
- 이기인, 「카프 방향 전환론의 재검토」,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06.
- 이도길,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품사 부착을 위한 확률 모형」,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5.
- 이현식, 「1930년대 이태준 소설의 특성 연구」,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006.10.
- 정희모, 「1930년대 창작방법 논쟁과 카프 문학의 미학」, 《한국비평문학》 13, 1999.07.
- 진영복, 「1930년대 한국 근대소설의 사적 성격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 최종길, 「계몽적 소설의 문체」, 《국어국문학》 20, 우리어문학회, 2003.

[Abstract]

**A study on uses of words in Korean novels before and after
KAPF
-Based on quantitative approach-**

Moon Hanbyoul · Kim Ilhwan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and linguistics is obviously different because its original purpose of research cannot be same. That is, main concerns of literature focus on creating texts or criticizing literature works, but the main purpose of linguistics is related to analyse linguistic phenomenon. Sometimes, however some of the methodology of linguistics can be applied to literature research because linguistics and literature can be overlapped to concerned to language itself. In this paper we introduced to quantitative approach to analyze and to compare novel texts during before and after 1934, in which KAPF is dismissed. So far Korean novels in this period can be estimated that trends are changed from critical realism to non-critical realism generally. Because most of research related to this argument are based on researchers' intuition or social background, however actual, authentic usage of words can be ignored or underestimated. We will expect that to analyse Korean novels using quantitative approach can show interesting results which cannot be captured by introspective criticism.

【Key words】 : corpus, KAPF, quantitative approach, social class, standard deviation, the history of literature

[부록] 카프 해체 전후기 소설 작품 목록

작가	제목	출판 년도	어절수	작가	제목	출판 년도	어절수
김기진	붉은쥐	1924	3,860	강경애	원고지 이백원	1935	2,067
최서해	탈출기	1925	2,160	계몽목	백치아다다	1935	3,500
이기영	가난한사람들	1925	7,009	박태원	길은어둡고	1935	3,350
김동인	감자	1925	1,556	엄홍섭	번견탈출기	1935	3,841
나도향	꿈	1925	3,645	엄홍섭	송어	1935	5,370
나도향	물레방아	1925	3,159	유진오	김강사와T교수	1935	4,357
이기영	민촌	1925	8,318	이효석	성수부	1935	1,122
나도향	벼어리삼룡이	1925	2,936	이효석	성화	1935	7,971
현진건	불	1925	1,725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1935	4,760
나도향	뽕	1925	3,698	강경애	지하촌	1936	8,443
박영희	사냥개	1925	1,786	계몽목	병풍에그린닭이	1936	2,661
주요섭	인력거꾼	1925	3,232	계몽목	장벽	1936	3,184
박영희	전투	1925	4,697	박태원	비량	1936	3,891
김기진	젊은이상주의자 의사	1925	3,563	박태원	성군	1936	4,093
전영택	화수분	1925	2,061	박태원	진통	1936	973
현진건	B사감파러브레 터	1925	1,332	박화성	고향없는사람들	1936	3,725
현진건	고향	1926	1,322	이태준	까마귀	1936	3,238
이기영	농부정도롱	1926	8,856	이태준	장마	1936	4,275
조명희	저기압	1926	1,387	이효석	분녀	1936	5,382
김기진	지옥순례	1926	2,095	이효석	들	1936	3,305
나도향	지형군	1926	8,744	이효석	모밀꽃필무렵	1936	2,007
박영희	철야	1926	1,697	주요섭	복소리두동동	1936	2,917
주요섭	개밥	1927	2,649	주요섭	아네모네의마담	1936	2,612
조명희	낙동강	1927	3,188	주요섭	추물	1936	3,871
계몽목	농촌사람들	1927	3,696	계몽목	유앵기	1937	4,773
최서해	최서방	1927	2,749	김남천	남매	1937	4,287
유진오	도시와유령	1928	2,995	김남천	처를때리고	1937	5,167
신채호	용과용의대격전	1928	4,037	박태원	성탄제	1937	2,181
계몽목	인두지주	1928	1,633	엄홍섭	길	1937	2,231
이태준	그림자	1929	3,438	이태준	복덕방	1937	2,990
이태준	산월이	1929	1,407	이효석	장미병들다	1937	4,507
김동인	광염소나타	1930	4,509	계몽목	청춘도	1938	3,095
김동인	광화사	1930	3,849	유진오	어떤부부	1938	2,922
이효석	악령기	1930	4,556	유진오	창랑정기	1938	4,027
박태원	수염	1930	1,698	유진오	치정	1938	2,977
박태원	적멸	1930	10,981	이태준	패강냉	1938	2,048
				계몽목	마부	1939	2,555

이기영	홍수	1930	6,948	계용목	강가루의조상이	1939	3,522
엄흥섭	흘러간마을	1930	2,259	김동인	김연실전	1939	8,796
김남천	공장신문	1931	2,541	박태원	골목안	1939	12,100
이효석	노령근해	1931	1,623	박태원	윤초시의상경	1939	4,787
유진오	밤중에거니는자	1931	2,409	박태원	이상비의비련	1939	1,237
유진오	여직공	1931	6,883	유진오	가을	1939	5,644
유진오	오월의구직자	1931	6,129	유진오	나비	1939	6,173
이효석	독백	1932	1,027	유진오	봄	1939	6,184
김동인	밭가락이답았다	1932	2,498	이광수	육장기	1939	7,743
이태준	불우선생	1932	1,874	이태준	농군	1939	3,325
김동인	붉은산	1932	1,274	이태준	영월영감	1939	2,548
이효석	오리온과임금	1932	1,793	이효석	해바라기	1939	3,469
박화성	하수도공사	1932	7,296	계용목	신기루	1940	2,810
이태준	꽃나무는 심어놓고	1933	2,121	김남천	경영	1940	9,133
박태원	낙조	1933	8,954	이광수	난제오	1940	3,262
이태준	달밤	1933	1,845	이태준	밤길	1940	2,089
이효석	돈	1933	1,173	지하련	결별	1940	4,390
김남천	물	1933	2,004	김남천	맥	1941	10,275
박화성	비탈	1933	9,138	박태원	채가	1941	9,238
박태원	사흘훤은봄달	1933	1,416	박태원	투도	1941	7,187
이기영	서화	1933	11,175	유진오	산울림	1941	2,673
이효석	수탉	1933	930	이태준	토끼이야기	1941	2,809
박태원	옆집색시	1933	1,518	지하련	가을	1941	3,806
박태원	피로	1933	1,929	김남천	등불	1942	4,948
박화성	논갈때	1934	1,685	유진오	신경	1942	4,832
박태원	딱한사람들	1934	3,811	이근영	고향사람들	1942	4,705
박태원	소설가구보씨의 일일	1934	12,261	이태준	무연	1942	2,276
엄흥섭	안개속의춘삼이	1934	2,813	이태준	사냥	1942	2,343
박태원	애욕	1934	5,783	이태준	석양	1942	4,585
이태준	춘뜨기	1934	2,070	이태준	돌다리	1943	1,991
박화성	한귀	1934	3,555				
유진오	행로	1934	7,661				
박화성	홍수전후	1934	4,573				
	합계		265,006		합계		283,555

문한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민족문화연구원

전자우편: amaranth@korea.ac.kr

김일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단

(136-701)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민족문화연구원

전자우편: haigh@korea.ac.kr

이 논문은 2009년 5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5월 29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1일에 게재 확정되었음.